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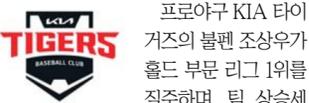
# 승리 연결 고리 '불펜의 힘'... '숨은 공신' 조상우 있다



1일 열린 SSG와의 홈경기에서 8회 마운드에 오른 KIA 조상우가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셋업맨 조상우, 초반 '빅딜' 우려 딛고 어느새 22홀드 '리그 1위'**

흔들렸던 5월 지나 되살아난 제구 6월 무패 8홀드 우뚝 "소리없이 강하다" 8회 필승투, 승리 지킴이 존재감 각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불펜 조상우가 홀드 부문 리그 1위를 질주하며, 팀 상승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조상우는 지난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앞선 8회초 마운드에 올라 이닝 1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총 투구수는 8개. 최고 구속 146km의 직구에 포크볼, 슬라이더를 섞어 중심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첫 타자 에레디아를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최정을 헛스윙 삼진, 이어 한유섭을 2루수 땅볼로 유도하며 삼자범퇴로 이닝을 끝냈다. 마무리 정해영이 9회를 책임진 KIA는 1점차 승리를 거두고, 3위 롯데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다.

이날 1홀드를 추가한 조상우는 시즌 22홀드를 기록, 2위 김진성 (LG) 과의 격차를 2개로 벌리며 이 부문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현재까지 42경기 37%이닝, 평균자책점

3.35, 3승 5패 22홀드. 특히, 6월 승률 1위를 기록한 KIA의 반등 흐름과 정확히 궤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진다.

그는 6월 한 달간 11경기에 등판해 무패 8홀드를 올렸다. 이 중 7경기가 팀 승리로 이어졌다. KIA의 6월 15승 가운데 절반을 직접적으로 관여한 셈이다.

무엇보다 그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흔들리던 불펜진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5월까지 팀 불펜 ERA (5.59)는 리그 9위에 머물렀지만, 6월 (3.10)에는 2위로 수직 상승했다.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했던 불넷과 (4.10개·5위) WHIP (1.38·4위) 수치 모두 전월보다 눈에 띄게 개선됐다. 후반 리드를 지키는 힘이 되살아났고, 조상우는 전상현과 함께 그 중심에 있었다.

이런 흐름은 6월 중순 리그 전체 7위였던 KIA가 최근 4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조상우는 마무리 정해영 앞, 주로 8회를

책임지는 핵심 셋업맨이다. 경기 후반 상대 흐름을 끊고, 승리의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하는 중책. 지금의 KIA에서 가장 신뢰받는 카드다.

KIA는 지난해 말, FA로 LG에 이적한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했다.

시즌 초반 흐름도 무난했다. 4월 평균자책점 0.96, WHIP 1.07, 피안타율 0.182를 기록하며 단숨에 필승조로 안착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제구가 흔들리며 평균자책점이 한때 7.82까지 치솟았다. 불넷 (12개)도 리그 최다를 기록했고, 흔들리는 뒷문의 불안요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11경기에서 11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0.82, 단 1실점만을 기록했다. 불넷 (6개)도 뚜렷하게 줄었고, 위기관리 능력도 한층 안정됐다.

조상우가 홀드를 추가할 때마다 KIA는 한 발 더 승리에 다가간다. 그는 팀 불펜의 한 축이자 승리의 연결고리다.

올 시즌 KIA는 김도영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 속에 이른바 '잇몸 야구'로 전반기를 버텨내고 있다. 백업 자원들의 분전,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어우러지며 상위권 도약의 희망도 키우고 있다.

그배경엔 조상우가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며 팀의 가장 중요한 이닝을 책임지고 있다. /주홍철 기자

## 6월, 리그 최다 출장·홀드 부문 1위

### 전상현, 생애 첫 월간 MVP 도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불펜 전상현이 생애 첫 월간 MVP 수상에 도전한다.

KBO는 2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 후보 6명을 발표했다.

투수 부문에는 KIA 전상현, 롯데 김보아, NC 로건이 이름을 올렸고, 야수 부문에는 롯데 레이에스, NC 데이비스, 박민우가 6월 월간 MVP 수상을 다툰다.

전상현은 6월 한 달간 KIA의 상승세를 이끈 불펜 에이스로 활약했다.

총 24경기 중 15경기에 등판해 6월 리그 최다 출장을 기록했고, 17%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2.08, 1승 9홀드의 빼어난 성적을 남겼다.

이 중 11경기에서 무실점 피칭을 펼쳤고, 특히 10이닝 동안 단 1개의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제구력을 뽐냈다. 피안타율은 0.210, 피OPS 0.542로 위력적인 투구내용도 입증했다.

6월 홀드 부문 리그 1위를 기록한 그는, 지난 달 28일 잠실 LG전에서는 KIA 선수 최초로 통산 100홀드를 달성하는 이정표도 세웠다.

그의 안정된 뒷문은 6월 팀이 리그 1위의 승

률 (0.682, 15승 7패 2무)을 올리며, 리그 순위 4위에 안착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다.

2016년 KIA에 입단한 전상현이 이번에 수상할 경우, 생애 첫 KBO 월간 MVP의 영예를 안게 된다.

투수 부문 경쟁자 롯데 김보아는 시즌 중간에 팀에 합류해 선발 등판한 5경기에서 5승 무패로 모두 선발승을 기록했으며, 승리 부문 1위에 올랐다. 31%이닝 동안 6자책점만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1.72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닝 소화 부문에서도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5번의 등판 중 4차례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NC 로건은 6월 5경기에 선발 등판해 모든 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소화해 이닝 부문에서 리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든 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고, 많은 이닝을 투구하고도 평균자책점 1.91을 기록하며 승리 (3승)와 평균자책점 부문 리그 2위에 올랐다.

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월간 MVP 기



전상현 <KIA 타이거즈 제공>

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국내 선수가 수상할 경우, 신한은행은 해당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200만원을 기부해 청소년 야구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 더 뜨거워진 챔피언스 필드... 4-6일 롯데전 '연예인 릴레이 시구'

### 알리·이수호·라도 "승리 기운 던진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예인 릴레이 시구 이벤트로 흥분열기를 끌어올린다.

KIA는 오는 4-6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 3연전에 연예인을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행사를 진행한다.

4일 경기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가수 알리가 첫 시구자로 나선다.

알리는 "시구자로 초청돼 영광이다. 공에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멋진 시구를 선보이겠다"며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펼치며 경기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5일에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이름을 알린 신예 가수 이수호가 마운드에 오른다.

이수호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모태 KIA 타이거즈 팬인데 시구를 하게 돼 무척이나 설렌다"며 "타이거즈 선수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시구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경기 전 애국가 제창도 맡을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왼쪽부터 4일 시구자 알리, 5일 시구자 이수호, 6일 시구자 라도. <KIA 타이거즈 제공>

6일 경기의 시구는 히트곡 제조기로 잘 알려진 프로듀서 라도가 맡는다.

라도는 "광주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늘 타이거즈를 응원해왔다. 2년 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시구를 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만 달랬었다"며 "올해는 꼭 시구를 통해 승리의 기운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롯데와의 3연전은 미니 효영대제전으로 진행되며, 양 팀 팬들과 함께하는 이닝 이벤트, 사투리 퀴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 광주체육중 핀수영, 이충무공배 중등부 종합우승

금8·은2·동1...강윤호 '최우수선수'

광주체육중 핀수영부는 지난날 28-30일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중등부 종합우승의 성과를 거뒀다.

4관왕을 달성한 강윤호 (2년)는 중등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강윤호는 남중부 표면 100m (45초53)와 표면 50m (19초88)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여울·오수현 (이상 1년)·최성연 (3년)과 호흡을 맞춰 출전한 짝꿍선생계영 400m에서도 3분33초65의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윤호는 김가을·윤호정 (이상 3년)·김원우 (2년)와 함께 출전한 혼합계영 400m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원우는 남중부 표면 400m (3분43초13)와 표



제22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체육중 선수단. 왼쪽부터 윤호정, 김가을, 오수현, 김원우, 강윤호, 최성연, 김여울, 윤아현 지도자. <광주체육중 제공>

면 200m (1분44초17)에서 각각 금빛 물살을 가리며 3관왕에 올랐다.

최성연은 여중부 무호흡잠영 50m에서 18초48로 금메달을 추가, 2관왕을 차지했다.

윤호정은 여중부 표면 400m (3분49초73)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오수현은 여중부 표면 200m (1분42초52)에서 은메달을, 표면 100m (45초77)에선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박희중 기자

## 김효주·최혜진, 올 시즌 첫 KLPGA 출격

오늘 개막 롯데오픈서 이예원·고지우와 우승 경쟁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정상급 기량을 펼치는 김효주와 최혜진이 국내 팬들을 만난다.

두 선수는 3-6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펼쳐지는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제15회 롯데오픈에 출전한다. 세계랭킹 9위 김효주는 LPGA 투어 통산 7승을 거둔 톱클래스 선수다.

올 시즌엔 지난 3월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4월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했다.

지난 5월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 (LET) 아랍코 챔피언십에선 국내 팬 앞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썼다.

김효주는 지난달에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허리 통증으로 기권했으나 최근

컨디션 조절에 전념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해외파 최혜진도 최근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다. 2023년 롯데오픈 우승자인 최혜진은 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국내파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올 시즌 KLPGA 투어 3승을 거뒀다 다승 1위를 달리는 이예원은 내 번째 우승을 노린다.

최근 열린 맥클·모나 오픈에서 KLPGA 투어 54홀 최소타 타이 기록 (23언더파 193타) 을 쓴 '버디 폭격기' 고지우는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1년 9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 이가영은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